



뜨거운 열기의 한일월드컵 바통을 이어받은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은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열렸다. 특히 북한 미녀응원단은 아시아의 축제를 더욱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 준 주인공이었다. 130명의 예술단원과 150명의 악단으로 구성된 20대 초반의 북한 미녀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아 2002부산아시아대륙게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스포츠동아 DB

강렬했던 北 미녀응원단...만경봉호 앞엔 청년들 복적

(미녀응원단 속소)

테마로 본 AG |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의 추억

130명 예술단원·150명 악단 구성한 20대 미녀들 절도있는 매스게임·흥겨운 노래...가는 곳마다 화제 성화 최중주자는 남남북녀 유도영웅 하형주·계순희 男농구, 아오밍의 중국 꺾고 '20년만의 금' 감동도

2002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커다란 축제가 열렸다. 국민들은 엄청난 열정을 분출하며 하나로 뭉쳤다. 한일월드컵의 길거리 응원도 그동안 억눌려왔던 우리의 축제본능이 이처럼 격렬했는지 되물게 만들었다. 리오카니발 못지않은 열기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붉은악마'가 됐던 2002년의 봄을 즐겼던 사람들은 그해 가을 부산에서 벌어진 제14회 아시아대륙게임 때 또 다른 열기에 휩싸였다. 남북 화해무드와 북한 미녀응원단의 바람은 강렬했다. 신기루처럼 오래가지 못해 더 인상적이었다. 햇볕정책을 앞세웠던 김대중정부의 마지막 해. 남과 북은 가까웠다. 월드컵 폐막 전날인 6월 29일 서해해상에서는 남북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6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화해무드는 변함없이 있었다. 8월 30일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의 연결 착공과 관련해 8개 항목에서 합의를 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도 있었다. 비무장지대(DMZ)에 군사용 핫라인도 개통됐다. 마침내 9월 23일 북한 선수단이 제14회 아시아대륙게임 참가를 위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서 김해로 직접 날아왔다. 그러나 부산아시아대륙게임을 영원히 기억나게 만든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만경봉호를 타고 원산에서 출발해 부산 다대포항에 도착한 북한의 미녀응원단이었다.

●대회 유치경쟁 막후 스토리 아시아대륙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유치도시를 놓고 경선이 벌어졌다. 이전까지는 후보지를 신청했다가 세가 불리하면 스스로 물러나 만장일치로 유치도시가 결정됐다. 21세기를 여는 첫 대회는 두 도시가 물러서지 않았다. 부산은 대만(중화민국)의 가오슝과 힘든 경쟁을 했다. 중국에 밀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위치에 처했던 대만의 가오슝은 적극적이었다. 1000만 달러의 발전기금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내놓겠다고 했다. 선수단 전원 무료숙박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대만의 리명후이 총재가 직접 이를 보증했다.

부산도 1200만 달러의 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가오슝의 총력전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부산을 살려준 나라는 중국이었다. '윈 차이나'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중국로서는 가오슝이 대회를 유치하면 불참하겠다는 압박을 넣었다. 중국은 막판에 숨겨둔 카드를 들이밀었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개최지 최종선정 때 거수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비밀투표 대신 공개투표를 하면 중국의 입김을 받는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단수 전략이었다. 결국 41개 참가국 가운데 부산이 37표를 얻었다.

●가까워진 남북 다양한 이벤트를 만든다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을 단 하나의 이벤트로 정리한다면 바로 북한의 응원단이다. 130명의 예술단원과 150명의 악단으로 구성된 20대 초반의 미녀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았다. 통제를 위해 숙소로 사용한 만경봉호가 머무른 다대포항에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응원단이 부산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작별인사를 했다. TV 중계도 했다. 절도 있는 동

작과 다양한 매스게임, 흥겨운 노래로 응원을 하는 응원단에 선수들이 치었다. 성화는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에서 체화돼 임진각에서 합쳐졌다. 성화 최중주자도 남남북녀였다. 남북의 유도 영웅 하형주와 계순희가 주인공이었다.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겠지만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인공기가 나부꼈다. 10월 1일 북한 여자역도 이성희의 금메달 시상식 때 북한의 국가가 연주됐다.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아시아대륙게임 사상 처음으로 OCA 소속 54개 국가가 모두 참가했다. 총 참가 인원은 44개국 8887명이었다.

●남자농구·남자배구·야구 등 주요종목 금 금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창원 마산 울산 양산에서도 경기가 벌어졌다. 마스코트는 갈매기를 상징한 두리아였다. '영원한 아시아'란 뜻과 '둘이 함께'라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은 18개 종목 316명(선수 184명, 임원 132명)을 파견했다. 한국은

37개 종목 1007명(선수 769명, 임원 238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역대 최고성적인 96개의 금메달, 80개의 은메달, 84개의 동메달을 땀다. 1위 중국은 금메달 150개, 은메달 84개, 동메달 74개였다. 9위 북한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였다. 한국은 구기 종목에서 극적인 경기를 많이 했다. 남자농구는 아오밍이 버티는 중국을 상대로 경기 종료 1분전까지 8점 차로 뒤졌지만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 낸 뒤 연장에서 102-100으로 이겼다. 20년 만의 금메달이었다. 필리핀과의 준결승전에서도 이상민의 3점 버저비터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신치용 감독이 이끄는 남자배구도 이란을 이기고 금메달을 땀다. 김인식 감독은 야구대표팀을 지휘하며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안겼다. 2002월드컵 4강진화를 썼던 남자축구는 준결승전에서 이란에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동메달에 머물렀다. 대회 MVP는 일본의 수영스타 기타타미 고스케(100m 200m 평영, 400m 혼계영 금메달)였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프로야구에서 통산 최다기록인 210승을 올린 송진우 한화 코치는 만36세의 나이로 참가한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 일본전과 대만전에서 호투하며 우승을 이끌었다. 스포츠동아 DB

“12년전 대만 결승전 9회말 삼자범퇴...영원히 못 잊죠”

●레전드가 말하는 나의 AG 3 송진우

“특급소방수 있는데 끝까지 날 믿어줘 단 하나의 AG금메달, 나의 보물이죠 후배들 본인실력만 발휘하면 금 충분”

송진우(48·한화 코치)는 현역 시절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다. 1991년 프로에 데뷔해 2009년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무려 21년간 프로 마운드를 호령했다. 통산 최다승(210승)은 물론 한국프로야구의 투수 부문 각종 통산 기록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야구로 수많은 기록과 기억을 쌓은 그지만,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에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벌써 12년 전의 추억이지만 아직도 생생 1998년 방콕아시아대륙게임에서 아시아대륙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야구는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에서는 해외파 없이 국내파로만

대표팀을 구성했다. 송진우 코치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세월 참 빠르다. 벌써 12년 전 일이다”며 웃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2002년은 한일월드컵이 열리면서 축구 인기가 치솟고, 야구 인기는 시들해졌다. 그래서 더욱 아시아대륙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한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당시 분위기를 돌이켰다. 두산 김인식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송진우는 만36세로 대표팀 맏형이었다. 웬만한 선수라면 은퇴를 고민할 나이였지만, 그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발휘했다. 그해 다승(18승7패)과 방어율(2.99) 2위에 올랐을 정도다.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는 국내투수 중 최고 성적이었다.

●3경기 등판 금메달에 혁혁한 공을 세우다 중국과의 예선 1차전에서 8-0으로 가볍게 승리한 가운데 그는 9회말 한국의 3번째 투수로 등판해 10이닝을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대만(7-0)과 필리핀(15-0)을 차례로 꺾은 뒤 예

선 4차전 일본전에 그가 선발로 출격했다. “중국전 등판은 몸풀기 차원의 등판이었고, 일본전은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타자들이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면서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 5회까지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결승전에 대비해 마운드를 내려왔던 기억이 난다.” 기억은 정확했다. 한국은 1회말 선취점을 뽑은 뒤 3회 6점, 4회 2점을 얻으며 9-0으로 완승했다. 그는 5회까지 16명의 타자를 상대해 볼넷 1개만 내준 채 완벽한 피칭을 자랑하면서 ‘일본킬러’ 명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부터 이선희 선배, 김기범, 구대성 등이 일본킬러였고, 최근엔 김광현이 일본전에 강하지 않느냐. 일본은 한국 왼손투수에 전통적으로 약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중국을 7-2로 격파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대만. 한국은 2회초 선취점을 뽑았지만 3회초 2점을 내주며 역전당했고, 4회말 3점을 얻어 4-2로 앞섰으나 8회말 1사 2루 위기상황을 맞았다. 여기서 김인식 감독은 송진우 카드를 뽑아들

었다. 그는 2사후 적시타를 맞고 4-3으로 쫓겼지만 9회말을 삼자범퇴로 처리하며 금빛 포효를 했다. “당시 마무리로는 현대 조용준이라는 특급소방수가 있었다. 그런데 감독님이 눈빛 한번 보내시더니 9회까지 맡기시더라. 포수 홍성흔이 감독님한테 내 공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끝까지 믿어주셨다.”

●AG 금메달은 나의 보물, 후배들도 파이팅! 송진우 코치에게 2002부산아시아대륙게임 금메달은 소중한 보물이다. 그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게임 금메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금메달이라 고이 간직하고 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인천아시아대륙게임 대표팀 선수들도 본인들이 가진 실력만 심심 발휘한다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싶다. 금메달도 따고, 남은 시즌과 포스트시즌에서 야구 열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보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keystonelee